아! 시끄럽다

(요1:1-5)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 시끄럽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아, 시끄럽다, 시끄러워서 도저히 들리지 않는다.
혹은, 말을 자꾸 해대서 의견이 전혀 소통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1969년에 발표된 스위스의 소설가 페터 빅셀이 쓴 소설 중에서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지겹고 따분한 한 나이 많은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 주인공의 한탄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탄의 내용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한탄이기도 합니다.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책상, 언제나 똑같은 의자, 똑같은 침대, 똑같은 사진이야, 그리고 나는 책상을 책상이라 부르고, 사진을 사진이라 하고, 침대를 침대라 부르지. 또 의자를 의자라고 한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지?”
아, 시간 많고 할 일 없고 모든 게 따분한 사람이 해볼 만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지? 어째서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말이야? 이

제 달라질 거야!” 하고서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그가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결정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이게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책에다 ‘침대를 사진이라 했으니까 이제는 책상은 양탄자라고 하자, 그리고 의자는 시계라고 부르자, 그 다음 양탄자는 옷장이라고 하고 거울은 뭐라고 부를까? 아, 의자라고 부르자, 시계를 뭐라고 부를까? 사진첩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단어를 다 공책에 적어 가지고 계속 외우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의자라고 하고, 침대를 보면서 사진이라고 그러고, 책상은 양탄자라고 그러고…

외웠습니다.

외운 다음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묘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이 늙은 남자는 오랫동안 사진 속에 누워 있었다, 아홉 시에 사진첩이 때르릉 하고 울렸다, 이 남자는 일어나 발이 시리지 않게 옷장 위로 올라갔다, 다음에 신문에서 옷을 꺼내 입고 벽에 걸린 의자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한 마디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에요.

이 상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사도요한이 요한복음의 서두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책상은 책상이다’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오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의 핵심부분, 핵심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사도요한의 의도가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라면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취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책상은 책상이다’의 주인공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혼자서만 구상해낸 그 언어의 세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오늘 나는 의자를 보니까 내 얼굴이 참으로 바위 같더라’, 여기서 바위 같다는 말은 잘 생겼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걸린 의자를 보니 내 얼굴이 바위 같더라, 다른 사람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태초에 말씀'이라고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말씀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가리켰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니까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왜 사도요한은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는 85년에서 90년 경 사이로 보면 정확하다고 합니다.
AD85~9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하고 파괴된 것이 AD7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3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뒤 6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유대나라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마제국에 흡수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제국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사상적 문화적으로는 아직도 헬라의 영향 아래 있었던 상태입니다.
헬라문화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 받고 있던 로마제국 내에서, 이제 유대나라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버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할 때, 사도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즉 태초에 계신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쉽게 말해 그냥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말, word.

그런데 뜻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 만물이 운영되고 있는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신적인 이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제국이 헬라문화권 안에 있었는데, 그 헬라문화라는 것이 로고스의 문화였습니다.
말의 문화였습니다, 말의 문화.
유대문화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유대문화는 말과 행동이 1대 1로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을 말합니다.
말이 한 마디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행동이 반드시 있는 것이 유대종교 속의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문화는 행동과는 다분히 무관하게 말과 말이 번져나갑니다.
말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 말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요한이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게 한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옆에 계신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겨난 게 없는데, 그런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 이 세상이 헬라문화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헬라문화가 철학의 본산, 무술로 말하면 중국의 소림사 같은 곳 아닙니까?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참을 찾는 거예요, 참.
생명을 찾는 겁니다, 빛을 찾는 것이고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진리가 왔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다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로고스, 그래서 여러분, 각 분야별 학문의 이름들에 이 로고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Biology, 생물학이잖아요, 생물에 대한 로고스다 이겁니다.
bio- 라는 게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logy 라는 게 로고스입니다.
또 Archeology 고고학, Psychology, psycho라는 게 프쉬케라는 헬라어에서 나왔거든요, 정신 마음, 거기에 logy 로고스, 마음에 대한 말이 심리학입니다.
Theology, 떼오스, 하나님에 대한 logy 말, 하나님에 대한 말이 신학입니다.
모든 학문에 로고스라는 말이 다 붙습니다.
모든 학문이라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물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들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만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돈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고, 내 나름대로 다 말, 로고스를 하고 있고, 로고스의 세상이 되었는데, 그 로고스의 세상에 태초에 있던 그 로고스가 오신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로고스들이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크게 뒤틀려버렸다는 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뒤틀려버렸느냐?
예를 들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러므로 만물 하나하나의 참 의미는 오직 태초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우리 가정으로 갖고 와봅니다.
그러면 내 아내를 바라봅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속의 생각을 누가 표현해내느냐 하면 말씀이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아내가 만들어진 이유와 내 아내가 만들어진 그 참 의도는 하나님 의중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의중이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는 A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내 아내를 B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식을 C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자식을 D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식을 향해서 D라고 말하는데, 나는 내 자식을 C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만물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참 의도를 알고계신 독생 하신 아들 예수님, 말씀으로써 그분만이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의도가 표현되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의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며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이 바로 이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책상인 것을 우리는 의자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에게선 침대인 것을 우리는 사진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바대로 맞춰진 삶이란 것은 아예 불가능해버려요.
이게 바로 불행과 고민과 괴로움의 모든 이유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믿음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려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오셨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말합니다.
최고의 가치요, 최우선적인 가치를 말해요.
그래서 마음에 생명이 채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만족입니다, 만족하면 나타나는 일이 기쁨입니다, 만족하고 기쁘면 나타나는 일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에 채워야 할 첫 번째 우선적인 가치를 담고 오셨다는 얘기에요.
빛이라는 얘기는 그 우선적인 가치를 우리 마음이 갖고 있을 때라야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갖고 대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돈이라는 걸 마음에 품고 나면, 그 돈으로부터 그 다음의 일들을 다 판단해 나갑니다.
여자를 만나도, 이 여자를 만나는 게 돈 버는 데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여자의 집이 부자일까 아닐까, 친구를 만나도 돈이 있는 친구인가 아닌가, 자식을 키워도 돈을 벌 수 있게끔 키워야지… , 첫 번째 가치가 돈이다 보면 그 다음 모든 것들이 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생각이 되게 됩니다.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셔 들여진 생명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만족하게 되고, 아니면 만족하려 하고 기뻐하려 하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판단해나가기 때문에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빛과 우리가 생각하는 빛,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명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 다른 겁니다.
사도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문이나 학식, 사회적인 명성과 같은 것들을 마음에 담는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에게는 배설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책상은 책상이다'의 소설 주인공이 침대를 의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배설물을 제일 좋은 것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긋나버리고 틀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도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요한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는 침대인 것을 의자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말씀을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양탄자인 것을 책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말을 죽이라는 얘깁니다.
양탄자가 양탄자로 들리게, 침대가 침대로 들리게,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리게,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리게끔, 내 속의 언어들을 다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예수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진다는 얘깁니다.
로고스의 문화권 안에서,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로 끌고 가려는 요한의 의도는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말들의 세상 속으로 왔기 때문에.

그 말들은 태초의 말씀, 하나님의 의중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말씀과 비교해볼 때, 완전히 뒤틀려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내 말을 죽이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 시끄럽다!

바로 이게 이 웅장한 요한복음의 첫 머리의 주제라는 거예요.

아, 시끄럽다!

태초에 말씀이 오셨는데, 너무 말들이 많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말들을 죽이고 태초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 침대인 것을 나는 사진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거울인 것을 나는 의자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표현된 말씀이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기쁨과 행복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